어른을 위한 안내

어린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2022년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2022년 7월 25일, 로마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2년 10월 18일,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어린이들은 전세계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돕기(ACN)가 주관하는 이 전세계적 기도 캠페인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기도 캠페인의 포스터는 잘 알려진 예년의 로고를 활용하였습니다. 올해의 포스터는 벌린 두 손이 지구와 모든 대륙의 어린이들을 감싸며 떠받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손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어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요한 10,29)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큰 가족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다정한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전쟁, 사악함, 박해, 질병과 공포를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네, 그분께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반드시 그분께 다가가 그분이 내미신 손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무한한 당신의 사랑과 함께 성자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십자가의 데레사 베네딕다'라는 수도명을 받고 가르멜 수도자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순교한 에디트 슈타인 성녀는 유다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나에게 충실한 분이며, 참으로 당신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를 붙드신 당신 손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에 사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 손으로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 계명에 반하는 우리의 자유 의지로 이 세상에 고통과 빈곤을 주었을 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로운 힘에 대한 확신을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복되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참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방탕한 아들과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 안의 복음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이 어린이들에게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 비유를 보여주는 간단한 만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며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분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의 끝에 나오는 큰아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당부합니다.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바로 이 캠페인의 목적은 오직 우리의 행복만을 바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천상의 모후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차고 누구도 고통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모두의 집이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10월 18일에 진행되는 “100만어린이의 묵주기도”는 믿음과 희망의 크고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쟁과 폭력 그리고 가난이 팽배한 우크라이나, 중동,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과 사람들이 평화 안에서 살지 못하는 모든 곳을 힘과 사랑이 가득한 하느님의 손에,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중재에 맡깁시다. 우리 어린이들을 하느님께로 데려가 그분께서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주시기를 청합시다(마태 9,13 참조). 그러면 우리는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ACN 재단장

마르틴 바르타 신부
ACN 지도신부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churchinneed.or.kr/
에서 확인해 주세요.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이란?

배경

2005년 어느 날, 남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들은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의 **"100만 명의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말이 떠오르며, 성모님의 강한 현존을 느꼈습니다.

2008년부터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이 재정 지원을 하면서, 2017년에는 전 세계적인 기도 캠페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참여방법

10월 18일은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오전 9시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사랑의 실천

묵주기도 뿐 아니라 기부를 통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는 2022년 현재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232450

예 금 주
(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주 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337호

문 의 02-796-6440